장성 은행나무 군락, 황룡강변 옮긴다

"반세기 가치 베어낼 수 없어"
황미르랜드 은행나무 수국길 연장

황룡강 은행나무 수국길. 장성군은 성산 은행나무 100여 주를 이곳에 옮겨심을 계획이다. 〈장성군 제공〉

오랜 민원을 야기한 장성군 장성읍 성산 은행나무 군락이 황룡강변 정원으로 옮겨간다.

장성군에 따르면 가을마다 악취를 풍기는 열매, 보행로를 훼손하며 뻗은 나무 뿌리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성산 은행나무 100여 주가 황룡강변에 이식된다.

장성군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동화면 은행나무 군락을 황룡강 상류에 자리한 정원 '황미르랜드'에 옮겨 심은 사례에서 해법을 찾았다.

지난해 식재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황미르랜드에는 수려한 풍광의 은행나무 수국길에 조성됐다. 장성군은 성산 은행나무도 황룡강변으로 옮겨 은행나무 수국길을 연장하기로 했다.

나무를 뽑아낸 자리에는 상수도관을 옮겨 심을 예정이다.

성산 은행나무 군락은 1970년대에 지역 주민들이 열매를 얻을 목적으로 조성했다.

시간이 흘러 열매 수요가 줄고, 자라난 뿌리가 보도블록과 담벼락을 훼손하면서 주민들은 은행나무들을 베어달라고 장성군에 요청했다.

장성군은 2018년 설명회, 설문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은행나무를 모두 벌목하는 방안과 50년가량 자란 군락을 보존해 가치를 되살리는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반세기 가까이 자란 나무가 지닌 유·무형의 가치를 마냥 베어버릴 수 없었다"며 "그동안 불편을 견뎌 낸 성산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은행나무의 가치는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 복암리고분전시관에 '디지털 실감 영상관' 구축

'임금님의 금동신발' 등 상영

복암리고분전시관 내 디지털 실감 영상관에 프로젝션 맵핑 기법으로 구현한 작품.

나주 복암리고분전시관(관장 이정호)이 1500여년 전 고대 마한(馬韓)왕국의 역사·문화유산을 한 눈에 관람할 수 있는 최신 디지털 영상기술을 선보인다.

나주시와 복암리고분전시관에 따르면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2021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한 전시관 내부 '디지털 실감 영상관'을 신설,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전라남도·(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지역 고유의 역사·전통 기반한 특화 콘텐츠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로 개발·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전국단위 공모 사업이다.

나주시는 지난 3월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복암리고분전시관 내 '마한 고분 가상융합(XR)형 콘텐츠 제작 및 XR체험존 구축'과 '오래된 미래, 마한의 기억(제목) 영상물 제작' 등 2개 과제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오픈한 디지털 실감 영상관은 제2 과제의 일환으로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전체 너비 11.7m, 높이 2.6m규격의 파노라마 스크린을 전시관 내부 3개 벽면에 구현했다.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은 건물 외벽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공간, 오브제 등 대상물 표면에 빛으로 이뤄진 영상을 투사하는 기술이다.

영상관에서는 아동 관람객을 겨냥한 애니메이션인 '임금님의 금동신발'(제목)과 3D모델링과 드론 기술 등이 접목된 '오래된 미래, 마한의 기억' 2개 작품을 상영한다.

'임금님의 금동신발'은 고대 마한인의 일상과 문화, 사후세계관 등을 소재로 다룬 2D·3D혼합 애니메이션으로, 올해 4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125호로 지정된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에 새겨진 환상 속 동물들이 등장한다.

또 다른 영상물인 '오래된 미래, 마한의 기억'은 영산강 유역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마한인의 화합과 포용 정신, 장례문화, 금속공예의 예술성 등을 담아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여수시, CCTV 관제센터 요원 31명 정규직 전환

여수시가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 31명을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여수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고용 안정화를 통해 안정된 근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용역 근로자 신분인 관제요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2200여 대의 다목적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 현장 발견뿐만 아니라 범인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시,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이달부터 재고 소진때까지

순천시가 1월부터 순천사랑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소비촉진을 통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할인 판매는 지류(종이)형과 모바일형 모두 해당된다.

상반기 할인판매액은 400여억원 규모로 재고 소진 시에는 5% 일반할인으로 자동 전환된다. 하반기에도 추가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한도 내에서 상품권 할인판매를 지속 시행해 왔다.

올해는 상품권 발행·운영 이래로 역대 최대 판매액인 1355억원을 기록했다.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예산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지류형보다 모바일형을 더욱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지류형과 모바일형을 합쳐 1500억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소위 '상품권 깡' 등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류형보다 모바일(카드, QR)형 이용을 권장 드린다"며 "순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가 있는 만큼 상품권 이용에 동참해 실물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사랑상품권은 지류형과 모바일형 두가지 형태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지류형 순천사랑상품권은 순천시 관내 농협은행·순천농협·축협·원협·낙협 등 48곳의 각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형(카드, QR)은 '지역상품권 chak(착)' 앱 또는 농협과 신협, 우체국 각 지점을 통해 카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북부새마을금고, 소외계층에 1000만원 성금

순천북부새마을금고(이사장 안세찬)의 10년을 넘는 우리이웃 취약계층 나눔행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순천북부새마을금고는 최근 금고 회의실에서 삼산동과 해룡면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40명에게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사진〉

순천북부새마을금고는 지난 2019년부터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출생 축하금 지원사업을 시작해 2021년까지 400명에게 전달했다.

또 2020년부터는 캠핑카를 구입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으며 매년 회원들에게 예금금리의 2배 이상의 이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넷째아이 낳으면 2000만원 드려요

무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무안군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 1월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첫째아이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 ▲둘째아이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 ▲셋째아이 기존 250만원에서 1000만원 ▲넷째아이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며,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무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해 생애최초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아에게 일시금으로 1인당 200만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한다.

각 읍면사무소에서는 3일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을 접수하며, 장려금은 오는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출산장려금 인상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